

철학사

40 라이프니츠의 악에 대한 견해 (휘튼 대학 아서 홈즈 저)

자, 오늘 오후 라이프니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지난번에 시간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던 라이프니츠의 자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는 악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선집에 요약본이 실려 있습니다)은 사상사 전체에서 악의 문제를 다룬 고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의 초점은 주로 이 부분에 맞춰질 것입니다.

특히 도덕적 악을 다루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 논증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17세기에는 토마스 홉스와 베네딕트 스피노자 같은 인물들이 현실 주의적 자유의지론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제에 대해 실재론과 반실재론을 구분한다면, 둘 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반실재론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고 느끼지만, 그러한 자유로운 선택의 경험은 단지 혼란스러운 관념일 뿐입니다. 선택 그 자체는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과적 과정에 의해 야기됩니다.

반면에, 다른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데카르트의 비결정론입니다. 심신 이원론, 즉 두 개의 분리된 실체로 이루어진 정신의 개념적 필연성, 개념화 능력, 추론 능력, 그리고 의지가 인식하는 대상에 대한 주장이나 부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는 마치 인과관계의 공백, 즉 완전히 비결정적인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의지가 하나의 기능인 정신이 독립적인 실체로서 인과관계에 지배받지 않고 기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물리적 자극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감각 반응, 감정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지는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이런 맥락에서 말하자면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가 기존과는 다른 종류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홉스의 기계론적 유물론과는 다르며, 그렇다고 데카르트의 경우처럼 모든 원인이 효율적이고 물질적인 것 뿐인 단순한 비결정론적 체계도 아닙니다. 그는 목적론적 형이상학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모나드에 내재적인 본질이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모든 모나드는 실현될 수 있는 고유한 잠재력을 미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나드 이론을 생각해 보면, 모나드가 하는 모든 일은 그 모나드의 내재적 본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본성이 그렇게 기능하도록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일종의 내적 결정론, 내적 자기 결정론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의 개별적인 본성에 의해 결정되고, 모든 본성은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본성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문제는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제 선택이 제 본성, 즉 제 존재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말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내 본성, 즉 내 존재를 바꿀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선택이 내 본성, 즉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혹은 내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나의 본성, 즉 내가 누구인지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더라도 내 본성에 영향을 미칠 자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선택이 나의 본질, 즉 나의 본질에 의해 제약된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어떤 면에서든 나의 본질을 바꿀 힘이 있는가? 질문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글에서 처음에는 그가 필연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필연적이라는 견해. 인과적 필연성의 문제. 그중 두 가지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중 하나는 223페이지에 있는 선집에 실려 있는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정론의 요약본입니다. 첫 번째 칼럼, 대략 3분의 1쯤 아래쪽에 있는 그의 말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인에 의한 사건의 예정은 도덕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결정론이 개인의 책임감을 박탈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파괴한다는 오래된 반론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의 예정론이 도덕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성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원인은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재는 어느 정도 남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원인은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도 의지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결정이 필연성이 아닌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는 결과가 경향을 따른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순을 내포한다. 또한 의지는 이와 같은 내적 경향에 의해 아무런 필연성 없이 결정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열정, 예를 들어 극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혼은 그것을 저항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무관심의 상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더라도, 균형 상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결코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어느 한쪽 편에 대한 경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 경향이 있다면 언제나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 경향에 저항하는 유일한 이유가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남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두고 보면 알 거예요. 반대되는 선택의 힘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229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이상학 답론』 제30장입니다. 제30장.

첫 번째 단락 중간쯤에 나오는 구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행위에 개입하실 때 자신이 정하신 법칙만을 따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그리고 이 구절에서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완전한 예지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지력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충분한 이유는 있지만,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처럼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2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법을 따릅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보존하고 만들어내십니다. 창조 과정은 지속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섬광은 존재할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는 내재적인 결정론이 작용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 개개인의 본질이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순서에 따른 자유로움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 과정과 특정한 생각의 순서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영원토록 예견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인간의 의지가 특정한 측면에서 항상 명백히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목적론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선택을 전혀 강요하지 않으시면서도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고, 우리는 그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서는 어떤 것들을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등등.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필연성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의지는 무관심한 상태에 있으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유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므로 걸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은 영혼의 몫이다. 걸모습, 그렇다,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 말이다.

보시다시피, 확고한 의지와 성찰을 통해 가능합니다.

숙고하는 것. 특정 상황에서는 충분한 숙고를 거치기 전에는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따라서 그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말처럼, 숙고와 신중한 고민을 통해 명확한 이해를 얻지 못하면 걸모습에 현혹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명확해지면 걸모습에 대한 혼란이 사라지고, 그것이 기만적인 걸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향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 당신이 자연스럽게 추구하려는 것은, 마음이 충분한 성찰과 성숙한 판단력을 얻게 되면 그

모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비교해 봐야 할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모나돌로지》 208페이지, 30번째 문단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바로 그것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앞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찰이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나'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것저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실체적인 존재, 비물질적인 존재, 그리고 신 자체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 줍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스러운 경향은 명확한 사고와 이성의 지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 그런데 233페이지를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233.

이는 '첫 번째 진리'라고 제목이 붙은, 좀 더 단편적인 작품의 발췌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진리와 필연적인 진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맨 아래에 이탤릭체로 된 문단 시작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완벽한 개념이죠. 네, 바로 여기에 본질, 본성이 있습니다

.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술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 관한 모든 것은 개인의 본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술어들

.

다시 말해,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행동들 ,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선택들. 개인에 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개인이 명확하게 이해될 때, 그 개인의 본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233 의 첫 번째 열 맨 위에는 베드로 또는 유다라는 완벽한 개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베드로 또는 유다. 그를 창조하라는 신의 칙령에서 추상화된 가능한 대상으로만 고려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리 아신 그 개념 안에는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필연적인 일들과 자유로운 일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존재들 중에서 자신의 지극히 높고 은밀한 지혜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와 배신할 유다 외에도 창조될 수 있었던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가능한 세계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유일한 가능한 세계는 아닙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없는 다른 세상도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더 부합하는 세상입니다.

그가 베드로가 죄를 짓도록, 또는 유다가 저주받도록 명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한 인물들보다 베드로를 택하여, 그는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죄를 지을 것이며, 유다는 저주받을 것이며, 그들이 존재하게 되도록 명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명제는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가능한 개념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미래 구원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영원한 가능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의 은총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의 은총 덕분입니다. 부인했을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하나님께서 그 경우에 역사하심으로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의 은총의 도움은 가능성의 측면, 다시 말해 베드로의 모든 행위와 선택을 포함하는 그의 관점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에서 그는 여전히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필연적인 자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자유입니다.

구원을 찾을 자유. 원한다면 자신의 본성을 바꿀 자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음, 그렇다면 모호함이 생기네요. 그는 자유를 비결정론으로 보는 관점을 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유를 일종의 양립론으로 보는 관점을 택하는

걸까요? 그는 분명 자유가 미리 정해진 본성, 즉 미리 개념화된 본성과 양립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정론. 그것은 예정론과 양립 가능합니다. 그는 우리의 본성이 변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그것 또한 자연의 예정론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찰을 통해 무엇이 선한지 이해할 때, 욕망의 방향을 바꾸고 본성을 변화시킬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베드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대신 사랑했습니다. 그는 배신에 혼란스러워했을 뿐입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퍼즐에서 빠진 유일한 부분은 우연적 진리와 필연적 진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인식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우연적 진리는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아놓은 선집에는 없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필연적으로 모든 진리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은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조건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견지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우연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전체의 완성을 위해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의 완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전체 위계질서의 본질과 그 긴밀함과 관련된 완전성의 원칙은 베드로와 유다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부인하고 유다는 배신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 결국 결정론으로 귀결되는 양립론일까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빌 해스커 같은 비결정론자도 있죠. 그는 여러분 중 일부가 인디버시티 시리즈에서 읽어보셨을지도 모르는 형이상학 책을 쓴 열렬한 비결정론자입니다. 제가 신학 수업을 가르칠 때 학부생으로 그가 있었는데, 그는 제가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 중 가장 노골적으로 반칼뱅주의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열렬한 비결정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양립론은 결국 결정론으로 귀결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결정론을 가리는 가면일 뿐이라는 거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해 보세요. 결정론적인가 아닌가? 저는 라이프니츠가 결정론자가 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는 데카르트의 사상에서 벗어난, 공허한 자유의지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나 칼뱅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연론자라고까지 말할 만큼 칼뱅주의자는 아니다.

칼뱅주의적이지 않다고요? 저는 칼뱅이 필연론자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어쨌든 그렇죠. 자유의지결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죠.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라이프니츠의 견해가 파헬벨의 견해와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라이프니츠가 그런 노선을 따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중세 후기에 발전했고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노선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 중도적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라이프니츠의 사상을 인용한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은 화이트헤드 같은 20세기 사상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네. 화이트헤드도 이것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글썄요, 화이트헤드를 읽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유사점이 있거든요.

화이트헤드의 사상에서 라이프니츠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헤겔이나 브래들리 같은 19세기 관념론자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한편, 화이트헤드는 버트런드 러셀과 오랫동안 함께 연구했습니다.

러셀의 초기 저서 중 하나는 화이트헤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 다시 생각해보니 라이프니츠에 관한 것이었네요. 그래서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현실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꽤 놀라울 수 있습니다. 물론, 화이트헤드의 저서 어디에서도 그가 라이프니츠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도, 그의 주요 저서 중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역사적 사안들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언급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흥미로운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음,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스커가 라이프니츠를 비판하는 것을 듣거나 읽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가 말하는 바는, 그리고 그의 작은 형이상학 책에서 말하는 바는...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자신의 본성에 의해 야기된다는 일종의 양립주의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본성이 그 자체로 야기되는 건가요? 우리의 반응이 본성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피드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본성 에 의해 발생한다는 모든 종류의 양립주의는 사실상 결정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외부적 원인이 아닌 내부적 원인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불만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 라이프니츠는 인간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의 행동의 자유까지도 보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신관이 이신론적 신관과 얼마나 다른지 주목해 보세요. 이신론적 신관에서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뿐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신은 끊임없이 존재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은총으로 개개인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존재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는 이신론적 관점보다 신학적으로 훨씬 더 적합합니다.

제 생각에 데카르트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 일종의 유신론적 관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는 유신론 이전 시대의 사상가이고, 저는 그것이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은 마치 "좋아, 신이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이제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는 식입니다.

글쎄요, 아시다시피 칼뱅주의자라면 누구도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도 그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고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비결정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아주 분명해요. 네.

네,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신체들, 즉 복합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정신과 신체, 영혼과 신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 즉 의지는 물리적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즉, 외부적인 원인이 결정짓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면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내 본성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은 끊임없는 창조 과정과 특별하고 매력적인 은총을 통해 내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명확하게 생각한다면 제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확한 생각이 미리 정해진 것일까요? 바로 그 부분이 모호한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스커의 요점은, 만약 비결정론, 아니, 취소하겠습니다, 만약 필연론이 틀렸다면, 만약 양립론이 일종의 필연론으로 귀결된다면, 유일한 대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라이프니츠가 네 번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가설을 최소한 한번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A, B, C와 같은 선택 논증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가 A는 틀렸고, B도 틀렸으니 C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단지 잠정적인 주장일 뿐이고, 결국 누군가 D라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라이프니츠가 바로 그 D를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한 자료, 악의 문제에 대한 개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모두 받으셨다면, 한 분씩 넘겨주세요.

자, 제가 여기서 한 일은 그의 악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 큰 체계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련의 요소들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자, 단일론에서 나온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분 이유의 원칙은 우연적 사건들의 연속 밖에 있는 최종 원인을 의미합니다.

목적론적 논증. 궁극적 원인은 필연적이고 완전한 존재이며, 전적으로 선하고 전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연에는 불완전함이 존재한다.

불완전함은 사물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사과를 썩고, 우리 몸도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불완전함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그는 영원한 진리, 자연 만물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미리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에서 사용되는 '원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의 본질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존재론적 논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므로, 자연은 섭광에 의해 생겨났고, 따라서 자연은 조화롭게 존재합니다. 단지 처음에 한 번에 완벽하게 조화되었다가 나중에 혼란스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이신론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의 개입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개입"과 "조정" 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

그래서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상 중에서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들도 구상하셨습니다. 유다나 페다가 없는 세상들 말입니다.

가능한 모든 세계 중 가장 좋은 세계. 그리고 그것은 선험적 진리처럼 보인다. 그는 이것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 가장 좋은 세계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그가 여기서 구축해 온 존재의 위계질서라는 개념은 맞습니다. 이제 그가 주장하는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 가장 좋은 세계'라는 개념은 볼테르의 『칸디드』에서 풍자적으로 비판받았죠. 볼테르의 『칸디드』, 아시나요?

그는 누군가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온갖 끔찍한 일들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 그리고 리스본에 닥친 대지진 속에서, 그는 팡글로스 교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팡글로스 교수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팡글로스 교수는 폐허 속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이곳이야말로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고로 좋은 곳이야." 삶에 대한 풍자적인 비판.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고로 좋은 곳이라니.

그 구절, 특히 53절부터 55절, 그리고 86절을 보면 , 이 세상이 모든 가능한 세상 중에서 가장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고 , 선하시다는 사실이 계속 해서 강조됩니다.

자, 이 명제들, 즉 하나, 둘, 셋에 네 번째 명제를 더하면 악과 관련된 고전적인 논리적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 명제가 앞의 세 명제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 때문이죠. 만약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전능하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완전히 선하다면,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할 것이다. 악은 존재하므로, 다른 전체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어야 한다.

자, 흔히 볼 수 있는 수정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의명분 논증,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논증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하지만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악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은 네 번째 항을 수정하여 "목적 없는 악이 존재한다. 악은 어떤 대의명분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바로 그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악이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능한 모든 세계 중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170년경 리스본 지진의 단면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며 "자, 보세요, 이것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 가장 이상적인 세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의 창조 사역, 즉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그 본질이 실현되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은혜의 결합은 모든 가능한 세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라이프니츠는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정적인 자연관이 아니라 역동적인 자연관, 즉 종말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는 단일론적 진술의 다음 구절에서 신의 도시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론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연과 은총의 모든 과정이 지상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절정에 달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7세기에 특이한 생각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지식이 곧 힘이라는 견해와 창조 명령을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개선하고자 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끊임없이 신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과학적 유토피아는 바로 신의 나라에 대한 그의 비전입니다. 토마스 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바이어던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시민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시민 사회이며, 그는 이것을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상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17세기에 매우 흔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통해 계몽주의 시대에 점점 더 지배적인 사상 중 하나가 된 진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대한 낙관주의, 어떤 이상적인 사회, 지상의 신의 나라를 향한 진보. 진보의 필연성이라는 생각이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역사철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역사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역사가 예전에는 그저 문학 작품, 즉 좋은 글, 흥미로운 글 정도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시간과 역사적 과정, 즉 역사적 진보라는 개념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꽃을 피웠고, 2학기에 들어서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라이프니츠가 제시한 신의 도시, 즉 자연과 은총이 모이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비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죄와 형벌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연의 섭리상 죄에는 그에 따른 형벌이 따르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질서 속에 내재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셨네요.

그렇다면 신정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약본에 번호가 매겨진 신정론의 1부에서 더 큰 선에 대한 논증을 다룹니다. 악은 단순히 이 더 크고 포괄적인 목적론의 일부일 뿐입니다. 악은 존재의 위계 전체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사물과 사물의 속성처럼 전체의 완성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포함하는, 더 큰 선을 추구하는 논증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장에서는 악이 제한적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악은 제한적입니다. 악은 목적이 있을 때만 허용되며,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선은 무한하지만,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후에 보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자유의지 논증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핵심은 의지의 내적 경향과 감정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절에서는 인간의 자유, 즉 인간의 자유 행사를 허용하는 것과 악의 발생, 이 두 가지 모두 허용되었으며, 더 큰 선을 위한 창조 계획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절에서 악은 선의 결핍이지만, 제한적이고 목적 있는 선의 결핍이라고 설명합니다.

6장과 7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8장 8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자유롭게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달리 창조하실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형이상학적 필연성과 도덕적 필연성을 구분하십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여러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 세계를 창조했을까요? 모든 가능한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필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은 형이상학적 필연성이 아니라 도덕적 필연성에 따라 행동합니다. 제 생각에 라이프니츠의 모호함은 신의 본성 때문에 도덕적 필연성이 정말로 형이상학적 필연성으로 환원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신은 도덕적으로 최선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신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예지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 속에서 행동하여 모든 것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현대 작가들 중 일부가 발전시킨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한 가지 변형은 이 세계가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한 세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세계만큼 좋은 다른 가능한 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러한 주장의 이점을 아시겠죠? 신은 여전히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를 창조하지만, 다른 세계를 창조할 완전한 자유, 심지어 도덕적 자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자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떤 이들은 단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동등하게 최선인 다른 세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썄요, 그는 이미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라이프니츠는 그 점을 고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신은 ' 창조 하다 ' 라는 단어를 과거형으로 사용했으니까요. 라이프니츠는 신이 현재형으로 창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요점은 그가 생각하는 창조는 신과 자연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군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본성을 정하신 피조물,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본성이 변형된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동안에도 존재를 유지하십니다. 네. 이해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성경적 정통 교리의 전체 그림 안에 포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잘 해냈습니다. 개혁주의 개신교 사상의 고전적인 틀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요? 창조, 타락, 구원. 이해 되지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신학적 틀 안에서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신학적 틀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체계를 고안해낸 겁니다. 다시 말해, 라이프니츠는 중세 철학자들의 모델을 따라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철학 체계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문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이 수업 마지막 날이니, 여러분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할 때 철저히 기독교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의견과 피드백을 주실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개신교 신자였나요? 네, 네, 개신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확실히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매우 활발한 교회네요. 온난화에 대한 당신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온난화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 만약 이 세상이 유일하게 가능한 최선의 세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외에 다른 대안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을까요? 글쎄요, 그가 도덕적인 제약 때문에 이것만 선택해야 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는 다른 선택지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는 형이상학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유로운 의지로 이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가톨릭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은 점을 가능하게 합니다 . 즉, 하느님은 창조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창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거예요. 사랑의 행위였죠. 네.

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만 국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선하심으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거나 자연적인 부패 과정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막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자유로운 존재가 없는 세상보다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낫다. 그게 바로 함의다. 알겠지?

그가 하는 말의 많은 부분이 악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적 담론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것은 전통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필요한 물건 모두 받아가 주세요.